

‘돌파프로그램’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88>
안드로이드판 : <http://git.io/fgm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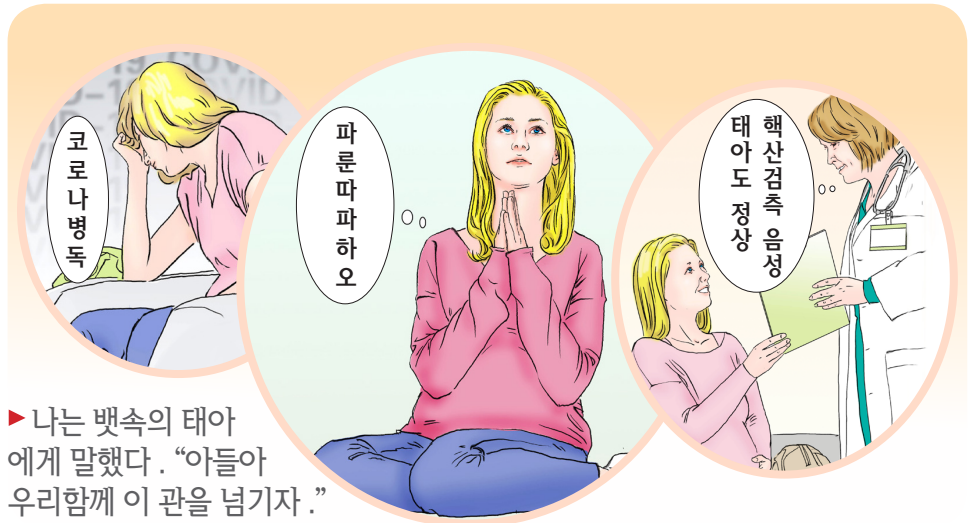
역병을 피하는 진언

이번 남경, 장가계로부터 유 발한 역병에서 두가지 문제를 폭 로했다: 1. 확진자 대다수가 살 상력이 더욱 강렬한 델타 변이병 독에 감염되자 사람들은 제 3 차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지 고민하 고 있다. 2. 확진자 대다수는 백 신을 접종받았던 사람들이다. 예를들면 남경 루커우(禄口) 국 제공항 직원 90%가 백신을 접 종받았다. 이때, 전문가도 부득 이 “백신은 중증환자에 대한 보 호성이 선명하고 사망률이 낮지 만 전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하지 는 못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학이 병독을 따를 수 없는 현실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 이 있지않는가? 긍정적인 답안 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고대에서 신은 사람마음만 보고, 신의 눈은 번개와도 같기 에 곧 사람들에게 선악에는 보응 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 다.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 한 경건함과 존경심은 사람들에게 복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 부 감염자는 생명이 위독할때 성 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 하오(真善忍好- 진선인은 좋습 니다)’를 넘해 구원 받았다.

기적 변이병독에 감염된 토론토 화 인은 죽음에서 되살아나다
평안 온 가족이 변이병독에 감염된 후 일주일만에 기적처럼 회복되다
실증 역병 제거에는 비결이 있 는데 결은 약에 있지 않다

고령 임신부는 역병 악몽에서 벗어나다



▶ 나는 뱃속의 태아 에게 말했다. “아들아 우리함께 이 관을 넘기자.”

나의 이름은 캐롤린이고, 올 해 37 세이며, 미국에서 생활 한다. 나는 고령 임신부로서 결 혼한지 5 년만에 첫번째 아기를 가졌다. 금년 1 월 12 일, 나는 임신 26 주일때 코로나병독에 감염됐다. 그날 나는 열이 점 점 더 심해져 이불을 4 개 덮어 도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고, 심장박동은 매분당 135 번 뛰었 으며, 전신의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더욱 괴로운 것은 태아의 태동을 느낄 수 없어 나 는 매우 걱정됐다.

그시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목구멍은 마치 칼에 베이듯 아 랐고, 한마디만 말 해도 산소공 급이 부족했으 며, 매일 24 시간 끊임없이 가래 를 뱉어야 했는데 나는 더는 견 디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

나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파룬 궁수련을 한지 여러해가 된다. 이전에 남편이 나에게 파룬따파 의 신기함을 알려주었지만 그당 시 대법을 요해하려는 적절한 생각이 없었기에 마음에 두지않 았다. 이때, 나는 친구와 전화 로 내가 그에게 지난번 태아기

기형검사때 의사가 태아의 위치가 앞으로 기울어져 대출혈 혹은 조 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많이 걱정된다고 말하자 뜻밖에 친구는 그도 이전에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모두 태아의 위치가 앞으로 기 울어졌으나 두 아이 모두 달을 채 워 순산했다고 하면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넘하면 아무일도 없 다고 알려주던 일이 생각났다.

나는 아주 큰 고무를 받고 그때 부터 생각만 하면 이 몇글자를 넘 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게 내가 지금 ‘구자 진언’ 을 넘하고 있기에 아무것 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 ‘구자 진언’ 을 넘하고 있기에 아 무것도 두렵지 않다 고 말했다. 나는 다 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온밤을 넘했다. 나는

뱃속의 태아에게 말 했다. “아들아 우리함께 이 관 을 넘기자.” 며칠후 단번에 많은 땀을 흘리고나서 다시는 열이 나 지 않았는데 일체는 진정으로 좋 은 방향으로 변했다. 그날밤 나는 파룬따파의 제 3 조 공법을 10 분 간 연마하기 시작해서부터 매일 20_30 분간 연공했다. 며칠후 호 흡도증상이 기적처럼 사라졌고, 후각만 회복되지 않았을뿐 음식

▶ 2 면에 계속

변이병독에 감염된 토론토 화인은 죽음에서 되살아나다

금년 6월 26일 정오, 캐나다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은 마크햄 퍼시픽 몰에서 ‘중공을 해체하고 박해를 멈춰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차량 대행진을 진행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지금, 이 행사는 사람들에게 출로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불행히도 영국 변이병독에 감염됐던 토론토 화인 류 씨는 집회에서 말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해서입니다. 저는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파룬궁을 믿었습니다. 그들(파룬궁수련생)이 저에게 삼퇴하라고 권유하였고 위난속에서 ‘구자 진언’을 명심하라고 알려주었기에 저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혜택 받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ICU에서 목숨을 앗아가려던 시각

금년에 45세인 토론토 화인 류 씨는 금년 1월말 핵산검측에서 양성 확진을 받았다. 2월 3일, 심각한 기침, 발열, 호흡 곤란, 후각 잃음을 동반하면서 증세가 갑자기 엄중해졌다.

“의사가 나더러 빨리 급진에 가보라고 해서 영국 변이병독(B.1.1.7)에 감염됐음을 검측해 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위험성, 사망률과 전염성이 가장 큰 일종입니다.” 류 씨는 말했다. “다음 나는 ICU 중환자실에 들어가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걸고 혼미상태에 빠졌습니다.”

2월 15일, 16일, 17일, 이 3일간 류 씨는 위독한 상태에 처했다. 그의 아내 린다는 회억해 말했다. “15일 오전 7시후 나는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놀란 나머지 몸까지 떨렸습니다.



▲ 사진 좌: 류 씨는 토론토 집회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 류 씨는 집에 돌아간후 매일 집 뒤우란에서 연공한다.



보통 병원에서 이른 아침에 전화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의 상황이 위독하다면서 현재 호흡기로 70%나 되는 고수치의 산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계속 온정되지 않고 100%까지 오르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영상으로 삼관한 남편이 이렇게 여러날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 하느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습니다.” 린다는 계속해 말했다. “하늘땅에 감사드립니다. 20일이 되자 의사는 남편이 온정됐고, 호흡기도 뿔었다고 했습니다. 21일 그는 ICU

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류 씨는 말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나는 좀 명석한 의식이 들었으며 오기전의 모든 일이 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시기에는 아내가 나를 보러 들어올 수 있었고, 예전에는 영상으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이미 큰겁난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20일간 침대에 누워있었고, 체중은 20여근 줄었습니다.

꿈에서 ‘구자 진언’이 기억나다

류 씨는 말했다, “ICU에서 혼미 상태에 빠져있던 십 여일 동안 저는 많은 꿈을 꿔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파룬궁 수련생이 알려준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 3면에 계속

◀ 1면의 계속

이 땀기 시작했고, 체력과 정신도 나날이 좋아졌다.

1월 28일, 핵산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게다가 의사는 나에게 태아도 정상이고, 태아 위치이상도 사라졌으며, 임신당뇨병, 임신고혈압도 없어 신체조건이 젊은이처럼 좋으니 순산을 고려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말 상상을 벗어난 일이었다.

내가 이번의 경험을 적을때 후각은 이미 많이 회복됐다. 비록 냄새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매일 더욱 많은 정확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이 가장 곤란한 시각 ‘구자 진언’이 가져다준 도움을 나의 부모님과 신변의 많은 친구에게 알렸다. 무한 폐렴에 전염돼 고통받는 환자들도 시험해 볼 것을 희망한다. 기적이 아마도 당신 몸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것이다.

◀ 2면의 계속

하오(真善忍好)’와 꿈에서 선원(神韻) 공연을 보러 간 것만 기억됩니다. 파룬따파가 저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나는 매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9년 말이었다. 류 씨는 캐나다 공항에서 그에게 진상을 소개해주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나면서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 인터넷에서 연공장을 검색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 연공장을 찾을 때에는 왜냐하면 나에게 발이 아픈 모병이 있는데 의사마저 무슨병인지 검사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마다 2_3일간 아파나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파룬궁을 연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퍼시픽 몰 연공장에 찾아갔을 때 마침 ‘9 일반’을 등록할 때여서 2020년 1월의 ‘9일 학습반’에 참가하고 ‘삼퇴’를 하였습니다. 연공후 저의 아픈 발이 진짜 천천히 나아갔습니

다. ‘9 일반’에 참가한후 나는 파룬궁을 요해할 수 있었으며, 파룬궁은 연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공부를 하고 심성제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 씨는 계속해서 주원과정을 회억했다. “가끔은 혼미상태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엄중할까요? 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법 사부님께 말했습니다. 사부님, 제가 금방 법을 얻었는데 저는 수련하고 싶습니다. 이 난을 반드시 넘겠습니다. 구해주십시오!” “한번은 마음속으로 ‘구자 진언’을 념하고 있었을 때 의사가 오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집에 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

“저는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파룬궁을 믿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저에게 삼퇴하라고 권유하였고 위난속에서 구자 진언을 명심하라고 알려주었기에 저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습니다. 그때 저는 곧 사부님께서 저에게 금방 집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저는 또다시 잠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에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의 자비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류 씨는 말했다. “일반 병실로 옮긴후 저는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라는 ‘구자 진언’을 념했는데 회복이 매우 빨랐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정말 빠르네요. 원래 당신을 다른 과로 이송해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한차례 놀랍고도 신기한 경험을 하고, 3월 16일, 류 씨는 평안하게 귀가했다. 그는 친구들과 말했다. “이번에 하마터면 돌아올 수 없을뻔 했어요. 가장 위독한 시각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온 가족이 변이병독에 감염된 후 일주일만에 기적처럼 회복되다

주루이강(朱瑞剛)은 올해 41세로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토론토로 왔다. 금년 3월 15일, 온 가족 3식구가 모두 역병에 감염되었으나 행운스럽게 치료하지 않고도 회복되었다.

연공한지 일주일만에 신기하게 완쾌되다

“3월 11일 나와 아들은 열이 나기 시작했고, 15일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증상이 나날이 악화했는데 병원에서는 전화로 우리에게 영

국 변이병독(B.1.1.7)에 감염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3월 19일이되니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돌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혈중 산소포화도(血氧饱和度)가 90이라면서 만약 더 낮아지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입원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선 구급차로 저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모든게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파룬궁을 배웠었는데



▲ 주 씨가 병원에서 검진받고있다.

데 후에 박해가 두려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저는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연

▶ 4면에 계속

◀ 3 편의 계속

마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데리고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열이 내렸습니다. 4, 5일 지나니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7일 병원에서 저에게 직장복귀 증명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기간 주 씨의 아내 장여사도 열이 나기 시작하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도 병원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해요.” 마찬가지로 일주일내에 아내의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주 씨는 “약물 도움이나 치료없이 온 가족이 나았습니다. 파룬따파가 우리 가족을 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접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주 씨는 중국에 있을 때 파룬궁과 접촉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저의 부친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저는 매일 병원에서 간호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친을 간호하는 과정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도 나빠지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의 부친과 같은 병동에 계셨던 분의 아들이 파룬궁 수련생이었는데 그도 부친을 간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심신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상태를 갖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저에게 연공 동작을 가르쳐 주고 ‘구자 진언’을 넘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보름 동안 연공하니 제 몸과 정신상태가 매우 크게 개선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 매일 활력이 넘

쳤습니다.”

그의 아내 장여사도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때 병원에서 간암 말기환자는 2, 3개월이면 저세상으로 간다고 했으나 저의 시아버지는 1년후에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는 파룬궁과 연관 된다고 하면서 파룬궁을 매우 믿었습니다.”

중공의 박해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출국하다

주 씨는 회억해 말했다. “한 동안 계속 그 파룬궁수련생이 나를 데리고 함께 연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우리 그곳은 작은 도시였는데 제가 연공한다는 소식이 우리 책임자에게까지 전해져, 저는 여러차례 사무실에 불려갔고 담당자들은 이른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법이 좋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후 파출소에 불려가 여러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홉 살 아들은 소학교 4학년이었는데 학교 선생님들마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저 애의 아버지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며 함께 놀지못하게 하는 동시에 전체학생들을 데리고 우

리 아들을 왕따 시켰습니다. 나는 아이의 성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2017년에 가족을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주 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그때 파룬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지 않았지만 중공이 파룬궁에 죄명을 날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중공이 파룬궁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룬궁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텔레비전에서 ‘천안문 분신’ 내용을 볼 때 곧 허점을 보아 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모두 ‘분신자살’은 가짜라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려도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화상을 입고도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며, 휘발유가 든 음료수병은 타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아 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는 “이번에 온 가족이 죽음에서 탈출한 후 저는 대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깊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파룬따파가 우리 온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진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대법을 굳게 믿게 했고, 지금도 매일 연공하고, 전법륜 (轉法輪)을 읽습니다.”라고 말했다.



▲ 7월 18일, 뉴욕 파룬궁수련생들은 대행진을 거행해 세인에게 역병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전했다.

역병 제거에는 비결이 있는데 결은 약에 있지 않다

76% 환자에게 후유증이 남았다

금년 1월 9일, 유명 의료학술지 《더랜셋》에서 무한시 진인탄(金銀潭) 병원, 중일유호병원 호흡중심, 국가 호흡 의학 중심과 중국 의학과학원 병원 생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한부의 보고를 발표했다.

이런 의학계 인사들이 무한 폐렴에 감염했던 1733명 무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76%는 조사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후유증이 있었고, 그 중 63%는 피곤하거나 근육무력감이 있고, 26%는 수면장애가 나타났고, 23%는 초조함과 우울증상이 나타났다. 폐부 후유증방면은 주원시기 병세가 엄중했을수록 폐기능 손상현상이 더 쉽게 나타났다. 기계통기치료 받은자, 산소요법 받은자, 산소요법을 받지 않은자를 상대로 조사했을때 폐확산기능장애 비례는 각각 56%、29%과 22%이다.

80세 중증노인이 7일만에 회복되고 무후유증

동시에 우리는 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부 사례도 보았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무한 80세 리 씨는 작년 1월 무한 폐렴으로 확진된후 병원으로 이송됐을때 이미 대백폐(大白肺) 증상이 나타났으며 생명이 위독했다. 의사는 그가 살수있는 희망수치가 매우 낮다고 했다. 친척들이 그의 상황을 안후 그더러 빨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넘하라고 알려주었다. 노인은 ‘파룬따파하오’이 5자만 기억하고 매일 성심으로 넘한 결과 7일후 완쾌돼 출원하여 온 가족은 놀랍고도 신기해 감탄을금치 못했다. 더욱이 리 씨는 두차례 건강검진에서 모두 건강한 수치

에 도달했고, 아무런 후유증도 남지않았는데 마치 전혀 감염된 적이 없는듯 했다. 이는 80세 중증 역병감염자로 말하면 그야말로 기적이였다.

또 이런 레제도 있다. 무한에서 연구생 공부를 하던 한 여학생은 작년 1월 17일, 무한 학교에서 귀가한후 자가격리를 했다. 당시 무한 폐렴이 전면적으로 폭발했고, 그의 교수도 이미 확진받았다. 집에 돌아간지 보름이 되자 불시에 기침, 발열, 호흡 곤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온 몸의 근육이 아파났는데 이는 무한 폐렴증상과 지극히 유사했다. 갑자기 닥쳐온 이런 변화는 그녀로 하여금 공포감에 빠지게 했다. 그의 외할머니는 파룬궁수련생이었는데 그를 고무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진심으로 넘하면 꼭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는 성심껏 외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했는데 얼마안돼 전신의 고통이 전부 사라졌다.

아주 많은 서방 과학자들은 신을 믿는다

이런 사실앞에서 우리 모두 사고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학을 믿고, 백신을 기대하는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중공은 무신론을 불어대지만 사실 아주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신을 믿는다. 연합국의 통계에 따르면 근 3세기 300명 걸출한 과학자 중 신을 믿지않는 사람은 겨우 20명 뿐이다. 명확하게 신을 믿는 사람은 242명인데, 그중 여러분이 익숙한 뉴턴(牛頓), 애디슨(愛迪生), X사선을 발견한 룬트겐(倫琴),



▲ 과학적인 검증을 받다시피 파룬궁수련생은 강한 에너지장이 있어, 가부좌를 틀면 병독을 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고, 면역세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볼트(伏特), 앙페르(安培), 옴(欧姆), 퀴리부인(居里夫人)과 아인슈타인(愛因斯坦) 등이 포함된다. 20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세개나라 과학자중 90% 이상이 신을 믿으며, 심지어 세계에서 최고로 저명한 10대 과학자전부가 다 신을 믿는다.

하버드대 신경과학자 에본 알리산더는 “오직 우리가 다시는 종교와 과학의 교조(敎條)에 국한되지 않을 때야만이 인류는 인식상에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교조는 우리들이 정신영역에서 진실한 물질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국한시킨다.” 그는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은 대뇌가 압박받아 산생하는 환상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친히 중증혼미중에서 다른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후 신의 존재와 다음세의 존재를 승인하게 됐다. 그가

▶ 6면에 계속

◀ 5면의 계속

2012년에 출판한 <천당의 증거>는 전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꼽혔다.

‘구자 진언’은 당신에게 진정한 바른 에너지를 준다

파룬궁은 성명쌍수(性命雙修)의 불가 고덕 대법이다. 1992년에 전해지면서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며, 신심을 정화하는 기의한 효과로 1억명이 넘는 수련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진, 선, 인(真、善、忍)’의 가치는 세계 인민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모두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고 있다.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는 이미 과학검증을 받았다. 2005년 미국 최고 의학원 중 하나인 베럴 의학원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증실했다: 일반 건강인과 비교할때, 파룬궁수련생의 중성구백세포의 삼킬력과 살상력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병독면역과 관련되는 조절유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각종 외부에서 공격하는 병독,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더욱 강해진 것을 발견했다.

덴마크 거스대학교 생화병리 연구실의 올슨여사는 “물질과 정신은 사실 똑같은 것이다. 정신 역시 물질이며, 선념으로 산생한 미시적인 물질이 방출하는 바른 에너지는 밝고 따뜻하며 사심

이 없는 특성이 있다. 악념으로 산생한 미시적인 물질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포함되어 암흑하고, 음랭하며, 자사적인 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진, 선, 인(真、善、忍)”은 우주의 특성이기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자주 넘하면, 똑같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연결되는 동시에 넘한 자의 세포와도 연결되기에 병독은 강한 바른에너지에 의해 제거된다. 이것이 바로 중의 의전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정기(正氣)’가 체내에서 흐르기에 ‘사기(邪氣)’를 멀리 합니다(正氣存內, 邪不可干).”이다.



하늘에서 좋은 처방을 내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다

역병은 현재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에서도 각종 역병과 불치병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함께 동한시기 신의(神醫) 피통(裨彤)이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선행을 하는 가문에는 복이 따른다

피통은 한광무제 류슈의 부하이자 개국공신이며 또 “악왕”으로 책봉받았다. 그는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데 있어 그야말로 침식을 잊을 지경이었고, 더욱

귀중한 것은 병을 보는데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동등하게 대했다.

그는 남쪽에서 역병이 흥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해지구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런데 피통이 집을 떠난후 그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백의를 보여도 효과가 없을 줄 누가 알았으랴. 형 피주는 부득이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피통에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통도 손수무책이어서 형은 다시 어머니를 모시

고 귀가해야 했다. 하루는 형 피주가 어머니를 부축해 길을 가던중에 어머니는 심한 갈증으로 참기 어려워 했다. 그러나 앞에는 마을이 보이지 않았고, 뒤에는 가게도 없어 어디에서 물을 구할지 몰랐다. 피주는 어머니를 길옆에 앉히고는 사곳에서 물을 찾았다. 왜나무 숲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두골을 발견했는데 안에는 고인 빗물이 조금 있었고, 또 가느다란 아기뱀 두마리가 물속에서 노

▶ 7면에 계속

◀ 6면의 계속

닐고 있었다. 피주는 아기뱀을 떠나가게 하고는 물을 담아다 어머니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눈을 감으시고 이 빗물을 마셔요.” 어머니는 목이 마른 나머지 이것저것 고려할 겨를이 없이 눈을 감고 그냥 기꺼이 마셨는데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날도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또 배가 고프서 견디기 힘들어 했다. 마을에 음식점이 없어 피주는 어쩔 수 없이 민가의 문을 두드려 밥을 구걸할 수 밖에 없었다. 때마침 그 집에서는 쌍둥이를 낳았다. 이 집의 시어머니는 장님이였고, 시아버지는 절음발이 였는데 이런 집에서 단번에 포동포동한 손주 둘이나 보게 되자 정말로 아주 기뻐했다. 이때 누군가 밥을 구걸하자 얼른 산모가 먹다 남은 율무쌀밥 한그릇과 계란 한개를 주었다. 생각밖으로 그 계란은 쌍란이었다. 어머니는 율무쌀밥과 쌍황란을 드시고 몸에 힘이 나 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갔고 어머니의 병도 완전히 다나았다. 얼마 안돼서 피통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만약 어머니가 쌍룡이 노닐던 천연수를 마시고, 쌍둥이를 낳은 집의 쌍황란에다 마소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뺨은 율무쌀로 절음발 시아버지와 장님 시어머니가 지은 밥을 드시면 자연히 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네가지 약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모친의 명이 길다면 자연히 하늘이 정해준 인연으로 약을 얻어 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귀가 길은 어떠한지 매우 걱정됩니다.” 피주는 편지를 보고 모친이 길에서 부딪쳤던 일을 돌이

켜보고서야 비로서 어머니는 동생이 처방한 약대로 마시고 먹고 했음을 알았다. 피주는 얼른 동생에게 편지를 써 사실대로 고했다. 동생은 형의 답신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다. “정말 선행을 하는 가문에는 복이 따른다는 말이 맞습니다. 노모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해서 하늘의 베푸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나 피통은 앞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선행으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여 하늘의 은덕에 보답 할 것입니다.”

신의 피통이 약처방은 내렸지만 만약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얻을수 없는” 약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피통은 고상한 의덕이 있어 “하늘이 내린 약처방”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에는 보응이 있다”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를 진실하게 체현했다.

대법은 또 한번 그를 구했다

오늘날에 와서 무한 폐렴이 가장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집에서 격리하면서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수시로 생명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생이 걸어온 진상전화를 받고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면 호전된다는 말을 믿고 따라한 결과 며칠 사이에 완쾌되거나 병증이 완화됐다. 수많은 실례가 증명하다시피 ‘구자 진언’은 역병을 제거하고 병치료에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효력 있는 하늘이 내린 처방이다.

Z 씨는 2020년 설전에 무한에 다녀온 적이 있어 귀가후 단독격을 했다. 하지만 격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기침, 흉통 증상을 동반해 무한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더니 얼마안돼 쓰러졌다. 그는 120에 구원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떤 병

원에서든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근본상 힘이 없어 스스로는 병원으로 갈 수 없기에 절망했다. 두려움과 실망속에서 그는 7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병에 걸렸어. 아마도 안될 것 같아……” Z 씨의 아들, 아내와 장모 모두 파룬궁수련생이다. 아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빠, 반드시 ‘구자 진언’을 넘하세요! 꼭 넘해야 해요!”

몇년전 Z 씨는 “계통성 홍반 난창”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험삼아 대법서적 《전법륜 (轉法輪)》을 읽었는데 글씨 병이 나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공 무신론에 깊이 침투되어 진심으로 대법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약을 먹어 완쾌됐다고 했으며, 때로는 심지어 대법에 먹칠하는 말을 하는가하면 ‘삼퇴 (三退)’한 것마저도 무효라고 말했다.

위급한 시기, Z 씨는 대법을 떠올렸고, ‘구자 진언’을 넘하기 시작했다. 온 가족은 모두 힘든 하루밤을 견뎌왔고, 다음날 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고열이 내렸고, 땀투성이 됐다면 지금은 아주 쇠약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큰 문제가 없으니 가족들에게 시름놓으라고 했다. 이번에 Z 씨는 대법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작은 개인병원이 소문이 자자한데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개인 진료소를 경영하는 의사다. 일반 시민들 외에도 북경과 다른 지방의 중국 정부, 군, 법률계 공무원들이 나의 진료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산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북경의 큰 병원에서 자신의 돈 한푼 쓰지 않고도 병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왜 면비 치료를 받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은 우리 병원으로 오는 걸까?

나의 비결은 딱 하나

우리 병원에는 무슨 영단묘약이 없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비법이나 수입한 기적의 약품도 없다. 모두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약을 사용한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나는 암, 희귀병, 불임증,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많이 치료했다. 그들 중 몇몇은 처음에 큰 병원에 갔지만 효과가 없어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됐다. 일부는 병원에서 10만원 이상을 써도 낫지 않은 병이 나한테 와서 10여 원을 쓰고 나왔다.

나의 비결은 단 하나 뿐인데 전부 파룬따파 덕분이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으며 나는 파룬따파는 환자에게 고목에도 꽃이 피게하는 위력이 있음을 안다. 내가 병을 보는 원칙은 우선 환자가 오면 먼저 그에게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한적이 있는지를 묻고, 만약 가입한적이 있다면 탈당하도록 권한다. 나는 그들에게 공산당의 거짓선전을 믿지 말라고 알려주고 중공이 여러차례 운동에서 8000만 명의 중국인을 사망시킨 실례를 말한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당귀 강택민은 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고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도모해 인신(人神)이 공분하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천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사악한 조직의 일분자가 될수 있는가고 말하면, 대부분은 진상을 알고 '삼퇴'를 한다.

그다음 나는 그에게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우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한다. 만약 공무원, 특히 공검법원원이라면 그에게 특별히 파룬궁 박해에 다시는 참여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나는 약물치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진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파룬따파의 법력이다. 매년 치료된 환자들이 나에게 고마워할 때마다 나는 "저에게 감사드리지 마세요. 감사드리려면 대법 사부님과 파룬따파에 감사드리세요. 제가 예의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느 고위 공직자의 비서가 여러해 불임으로 고생했다. 내가 그녀를 도와 "삼퇴"를 한 후 이미 50대 초반인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다. 여러명 나이가 반백이되고 불임이던 공안국장이 파룬따파 수련생 박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그의 아내가 1~2개월 사이에 임신하게 됐다.

나는 또한 암으로 고생하던 몇몇 경찰관과 정법계통 공무원들 역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탈당한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공안부장이 진상을 알고 '삼퇴'하다

무한 폐렴 폭발한 후, 각급 경찰과 정부인원들이 나의 진료소에 와서 탈당하는 차수도 전보다 많이 늘었다. 한 공안부장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당신이 무슨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데 무한 폐렴에 재감염되면 전염성이 10배는 된다는데 이런 병은 당신이 치료할수 있습니까?" 나는 답했다. "물론입니다. 대법은 무소

불능 하기에 무슨병이든 진심으로 '구자 진언'을 넘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중공은 역병 상황을 은폐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것은 종래로 백성의 목숨을 안중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사람들에게 역병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을 알리는데 이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재 인화가 이토록 많을때 모두들 하루빨리 '삼퇴'를 하고 재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안부장은 알아듣고 '삼퇴'를 하고는 말했다. "앞으로 절대로 파룬궁박해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파룬궁의 덕담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대법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역병과 재난은 당신을 멀리할 것이고, 당신도 앞으로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두차례 '7.20'은 우연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주시 홍수 재난과 남경시에서 역병을 선포하던 날 모두 7월 20일이다. 중공은 바로 1999년 이 날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작년 1월 23일은 무한에서 성봉쇄한 날이며 또한 2001년 1월 23일에 중공이 '천안문 분신' 기편극을 제작해 파룬궁을 모함한 날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중공의 파룬궁박해는 최대의 악이자 신불을 멸하는 큰 죄이다! 때문에 '하늘이 중공을 멸(天灭中共)'하는 화를 초래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줬다. 우리는 절대 순장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속에 중공이 부어넣은 파룬따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를 인정하며, '삼퇴'하여 중공을 탈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3억 8000만 중국인이 '삼퇴'성명을 발표하여 자신에게 좋은 미래를 선택했다.